교환학생 체험후기

파견학교: 메모리얼 대학교 그렌펠 캠퍼스

기간 : 2019.09~2020.04

-출국 전 준비

1. 학생비자신청

한 학기만 가시는 분은 학생비자 신청 필요 없습니다. 저는 두 학기를 가야해서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학생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복잡하고 저도 학기 중이라 정신이 없어서 유학원에 맡겨서 잘 받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유학원 이용하시길 추천드려요.

2. 비행기 표

저는 캐나다에서 학기를 다 마치고 언제쯤 돌아올지 모르겠어서 편도로 끊었는데 되도록 왕복끊으세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국제학생증 이용해서 끊으시면 괜찮은 가격에 항공권 예매하실 수 있어요.

-출국 후

1. 거주

저는 그렌펠 캠퍼스 그린 샬레 기숙사에서 두 학기동안 생활했습니다. 기숙사는 올드레지던스, 뉴레지던스, 샬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레지던스는 2인 1실이고 거의 1인 1실과 같은 구조라 봐도 되는데 같은 층끼리 부엌이 공용이에요. 샬레는 4인 1실인데 각 방이 있고 화장실은 2개, 공용 거실과 부엌이 있어요. 만약 캐내디언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으면 샬레 추천드려요. 대부분 룸메가 코너브룩 사람입니다. 조금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있으면 고민해보세요. 저는 활발한 성격이 아니라 첫 학기때 룸메 세명과 지내는 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한국인 룸메가 한 명 있어서 생활하는 데 더 편했어요. 혼자서 룸메한테 다가가는 것보다는 둘이 덜 부끄럽잖아요 ㅎㅎ 파티는 대부분 샬레에서 사는 친구가 있으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파티를 좋아하는 룸메일때 매일 집안에 스피커가 울려요. 취향따라 잘 선택하세요! 파티 좋아하시면 정말 재밌을거에요.

2. 음식

세인트존스 캠퍼스에 비해 그렌펠 캠퍼스는 매우 작은 시골이라 가장 가까운 식당이라도 걸어서 왕복 이삼십분이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기숙사에서 요리를 해먹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셔틀을 타고 일주일에 한 두 번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식재료는 생각보다 싸서 요리해먹기는 괜찮았어요. 날씨가 좋으면 걸어서 15분 거리인 콜먼에 가서 장도 보고 옆에 술만 파는 리퀴어스토어에서 술도 사러 갈만해요. 겨울에는 걸어서 가면 피부 얼어요..

3. 옷

옷 많이 챙겨오지 마세요. 일주일에 두 세벌로 돌려 입게 돼요 어차피.. 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아닌 친구들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다들 옷은 편하게 입습니다. 저는 후드티 두세벌과 트레이닝복 바지 두 벌을 제일 많이 입었어요. 주변에 돌아다닐 곳도 별로 없기 때문에 차려 입을 일이 거의 없어요. 가끔 학교 안 펍인 백랏에서 행사할 때만 입는 정도에요. 신발도 슬리퍼 가져온거 눈 오기 시작하면 신을 일 없어서 버리고 왔어요. 운동화 하나랑 겨울부츠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겨울부츠는 사오시는 걸 추천해요. 전 여기서 샀는데 한국보다 비쌌어요.

4. 수업

같은 국제학생들 중 전남대, 인하대, 중앙대, 숙명여대, 울산대, 국민대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 친구들 학교는 다 절대평가라 하더라고요. 충남대만 상대평가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항상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두 학기 모두 12학점을 수강했습니다. 첫 학기는 전공 과목 두 과목과 일선으로 인정되는 두 과목을 들었습니다. 전공은 그래도 할만했지만 심리학이나 철학 수업은 조금 힘들어서 드랍하고 싶었어요 ㅎㅎ.. 특히 철학 수업은 50분 수업 중에 대략 30분은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이어서 신기했는데 조금 소심한 분들은 부담스러울 거에요.. 제가 수강했던 과목들 중 절반 이상이 시험이 3번 이상이었어요. 거의 이주에 한 번씩 시험을 치거나 과제를 제출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 과제들이 대체로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시험들은 제 생각에는 충대에서 쳤던 전공시험보다 쉬운 느낌이었어요. 특히 객관식은 쉽게 내주세요. 어떤 과목이든 에세이는 한 번씩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책 값이 비싼데 저는 일부러 책이 필요 없거나 ppt로만 수업하는 걸 골라서 수강했어요. 없다면 페이스북 이용해서 중고로 사세요! 아니면 룸메들에게도 물어보면 가끔 책을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5. 날씨

9월 학기로 가는 분이라면 조금 더 일찍 캐나다에 가서 여행을 하다 학교에 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8월 캐나다는 날씨가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꼭 즐기시길 바라요. 그렌펠 캠퍼스가 있는 코너브룩은 캐나다 가장 동부에 위치한 섬이에요. 그래서 학기 중에 어디 여행을 가기에는 좋은 위치

는 아닙니다. 코너브룩에서 토론토까지 국내선 왕복만 평균 오십만원이에요. 캐나다는 국내선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전이나 종료 후에 여행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에요. 9월 코너브룩은 선선하고 노을지는 하늘이 정말 예뻐요. 10월부터는 일주일에 4일은 비가 오고 빠르면 11월 초중부터 눈이 엄청 와요. 저는 코너브룩에 3월 말까지 있었는데 11월부터 쌓인 눈이 녹는 걸 보지 못하고 계속 내리는 것만 보다 왔어요 ㅎㅎ 가장 추울 때는 체감 -25정도였는데 딱 일주일정도 그렇게 추웠고 그 이후로는 평균 -10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첫 학기때는 괜히 시골로 온 것 같고 할 것도 없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날씨도 9월 이후로 비가 자주 왔어서 더 우울한 날이 많았어요. 룸메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지 못 했기 때문일수도 있고요. 하지만 두 번째 학기때는 좋은 친구들도 정말 많이 만났고 시골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아니라 일 년으로 온 걸 만족하고요 ㅎㅎ

정말 아쉽게 마지막에 코로나가 터져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좋은 기억들도 많이 만들어와서 후회는 안 해요 ㅎㅎ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메일: tpwjd741@naver.com